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한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진선** · 김영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문화', '진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학생'과 '진로상담'을 핵심어로 선정된 논문을 3차례의 선정 및 배제 과정을 통하여 총 5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 분석과 두 차례의 범주화와 평정 및 점검 과정을 수행하여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상담심리, 청소년,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된 논문이 많았고, 중, 고등학생이 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패널데이터가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가 사용되었다. 넷째, 연구주제는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태도 등 진로 관련 변인이 다루어졌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인식과 진로집단상담이 다루어졌다.

주제어: 다문화, 진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논문 접수: 2020/07/20 수정본 접수: 2020/08/14 게재 승인: 2020/09/08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802).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전공 박사과정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kimysoon@inha.ac.kr)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이주근로자 가정, 난민가정 등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각종 대중매체와 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2012년 이후부터 시작된 다문화가정 학생 조사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1.1%에서 2019년 3.8%의 증가율을 보였고 중,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 대비 각 2.3배와 3.3배 증가를 나타냈다(교육부, 2019).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율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에 국가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발달과정에서의 경험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응 등의 다양하고 특별한 상황과 맥락적 문제를 겪게 되며, 특히 진학문제에 부딪히고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된다(박진우, 장재홍, 2014; 이창호, 2013). 이들의 다문화적 배경 특성은 언어발달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 학습에 결손, 편견 및 차별, 대인관계 어려움과 학교 내 적응을 어렵게 하며 학교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 경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박주희, 남지숙, 2010; 서현, 이승은, 2007; 오성배, 2005; 장덕희, 신효선, 2010;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인간의 발달과정 중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올바른 진로성숙도 함양을 방해하게 하여 낮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나게 한다(김현영, 장석진, 2017; 윤아름, 2013).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 문제(33.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문제(13.3%)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정하성, 2009).

Super(1990)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기는 성장기와 탐색기로 중·고등학교 시기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한다. 진로상담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을 촉진하고 진로 선택을 돕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Bardick et al., 2006). 진로상담은 현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한 교육,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대상별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정철영 외, 2015). 하지만 개인의 진로를 이해할 때 보편적인 진로발달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 각 개인의 ‘문화적’ 특성인 집단의 맥락과 사회적 구조, 성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봉환, 2017; 한효정, 정철영, 2011).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생애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시기적 특성, 다문화적 배경, 진로발달 등이 맥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진로상담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상담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다문화 상담 분야에서 진로상담은 200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문화 상담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었고(김은경, 김현주, 2017).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연구는 제한적이며 미흡하다.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로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유정리와 김혜경(2008)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청소년 진로상담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 변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 혹은 진로 가치관 등의 진로 변인들에 관한 연구주제의 동향들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진로 관련 연구에서 진로 변인연구는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진로 의사결정, 진로 행동, 진로발달, 성격특성 및 적응의 연구가 있었다(손승연, 이종연, 2017;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상의 한정성과 상이성, 그리고 상담학 학술지 연구만으로 분석된 것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진로 탐색 집단상담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양한 진로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구성을 언급하였지만(조남욱, 박명선, 2014),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 분석연구는 구분되지 않았다. 김지연과 이윤희(2019)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 53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문화의 특성이 고려된 진로 주제 동향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나 본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대상을 학교급별 학생으로 넓혀 진로발달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과 진로상담 주제에 관련된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로상담 동향 분석연구들은 진로상담에 직접 관련 있는 주제 분석을 위해 상담학 관련 학술지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손승연, 이종연, 2017; 조항 외, 2009). 이는 진로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진로 변인의 탐색 동향을 살펴보기 어렵고 진로 관련 주제 탐색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상담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연구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주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가 검증을 거친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진로 관련 변인과 진로상담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을 통하여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및 연구 발전 제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구성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국 국적의 친부모가 한 명만 있는 경우이고 외국인 가정 자녀는 둘 다 외국 국적인 친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로 구분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 중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교육부, 2019). 다문화가정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약 87%(106,583명)이고 다음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가 13%(15,629명)이다. 그리고 그들 부모의 출신국은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이다(교육부, 2019). 다문화 학생 조사를 시작했던 2012년 일본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은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19년 7.1%로 급감한 비중을 보였고 베트남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2012년 7.3%였지만 2019년 30.5%로 빠른 속도의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중국 출신 부모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2년 16.4%에서 2019년 22.5%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의 출신국 중 약 90%는 중국인이고, 이들은 본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구분된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이다(교육부, 2019).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정책을 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주도하고 있다. 그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중점을 둔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08)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성장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2006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2016년 한국직업 능력 개발원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진로상담 운영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탈북 및 다문화 교육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상담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교육부, 2016).

2. 진로상담

진로상담은 한 개인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직업적응, 진로변경, 실천 등의 과정을 도와주는 영역이다(김봉환 외, 2007). 청소년 시기는 진로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시기이다. 정하성(2009)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에게 학업 문제와 함께 진로는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진로발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마다 자신의 독특한 개인사가 있고 진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이며 진로상담은 그 내담자의 서사적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유현실, 2018). 또한 진로상담은 생애 기획(life design)패러다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내담자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진로 혹은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돕는다(Savickas, 2012).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진로상담은 그들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하고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그리고 진로탐색, 진로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진로 교육과 진로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낮은 진로수준을 보인다. 특히 진로장벽은 청소년 시기에 확고하게 형성되는데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여러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Brown & Lent, 1996).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에 기반을 둔 진로를 탐색하고 디자인하여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이 고려된 진로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초기 자료수집부터 다문화교육 전공 교수 1명과 다문화 진로상담경험이 있는 인문융합치료 전공 박사과정 1명이 한 학기 동안 연구 주제를 다룬 논문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분석의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동향을 분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와 진로상담 분야의 탐색적 연구 동향 분석 틀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기간)	분석틀
유정이, 김혜경 (2008)	청소년진로상담	국내 학술논문 110편(2000-2006)	연구 시기, 연구방법, 연구내용, 통계분석방법
조항, 김계현, 이자명(2009)	진로 및 직업 상담	국내 상담 학술논문 73편(2000-2008)	연구 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조남옥, 박명선 (201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내 학위, 학술논문 71편(2004-2013)	프로그램 연도, 연구유형, 표본 지역, 프로그램 실시 회기, 프로그램 운영, 활용주제, 참가인원, 효과검증 도구, 효과검증 자료 분석, 후속 연구제언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분석대상(기간)	분석틀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다문화 상담	국내학술논문380편 (1993-2016)	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김은경, 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 질적연구	국내 및 북미학술지 78편(2003-2015)	연구시기, 학술지 학문분야, 연구대상, 연구접근법, 신뢰도 타당도, 연구주제
손승연, 이종연 (2017)	진로상담	국내상담학회발간지 117편(2000-2015)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방법, 측정도구
김주후, 정소미 (2019)	진로진학상담	국내 학술논문47편 (2011-2019)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참여인원, 상담관련내용 포함여부, 상담관련세부정보
김지연, 이윤희 (2019)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	국내 학술논문53편 (2009-2019.6)	연구기초단계, 연구주제, 사회인지진로 이론의 변인 분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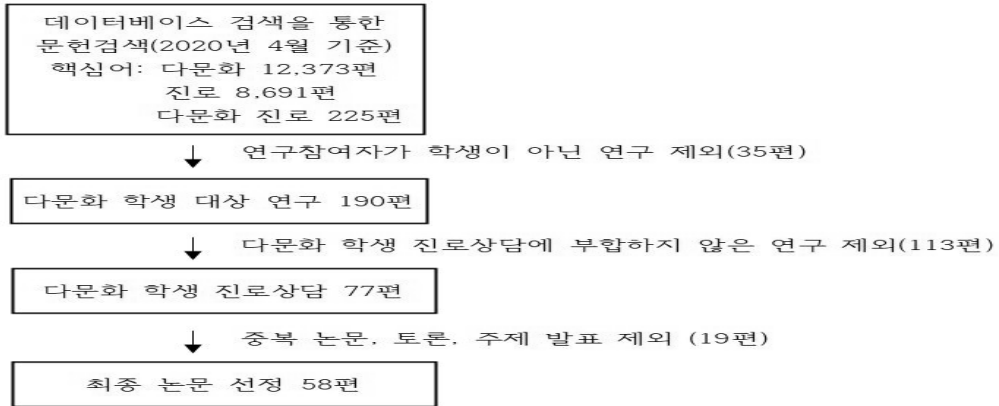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와 진로상담 분야의 탐색적 연구의 분석 8편을 참고하였다(김은경, 김현주, 2017; 김주후, 정소미, 2019; 김지연, 이윤희, 2019; 손승연, 이종연, 2017;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유정미, 김혜경, 2008; 조남옥, 박명선, 2014; 조항 외, 2009). 선행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연구시기,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다루었다. 진로상담 주제 관련하여 진로인식, 진로발달, 진로의사, 진로결정 등을 분석하였다(김주후, 정소미, 2019; 손승연, 이종연, 2017; 유정미, 김혜경, 2008; 조항 외, 2009). 국내 진로상담 관련 연구물은 1960년대 이후 발표되기 시작하여 2500여편에 이르고, 다문화 진로상담 관련 연구는 발표된 학술지 기준으로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되었다. 그 수도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 관련 상담 연구가 출판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진로의식, 진로 가치관 및 태도, 진로성숙 및 인식, 진로의사 결정, 진로탐색, 진로발달 등 진로상담 관련 연구물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연구참여자가 된 연구들과 소수 연구인 다문화 진로상담 프로그램 연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현황 이해와 발전에 도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분석 절차와 대상 논문

본 연구는 국내에 발간된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검색 도구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 정보 논문검색 서비스(KISS), 누리미디어(DBpid)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진행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절차를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진로’, ‘다문화 학생 진로’를 핵심어로 검색하였고, 결과 ‘다문화’ 연관이 검색된 국내 학술지 논문은 12,373편, ‘진로’와 연관된 학술지 논문은 8,691편, ‘다문화 진로’는 225편이었다. 첫 번째로 연구참여자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연구만 추린 결과 190편이 선정되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연구 113편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에 대한 연구 77편이 검색되었다. 세 번째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 논문, 토론, 주제 발표 연구 19편을 제외하여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에 부합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1, 2, 3차의 선정 및 배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들의 전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58편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동향 분석 틀

본 연구는 1차로 상위범주를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상위범주를 기준으로 본 연구 분석대상인 58편 논문을 귀납적 방법으로 2차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공동연구자와 협의하여 2차 범주화로 얻은 하위범주들을 보완, 수정하였고 최종적인 분석범주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의 연구 동향 분석범주

범주		내용
기본정보	발행처	• 학술지 학문 분야
	발행연도	• 2010-2020. 4. 연도별 분석
연구참여자	유형별	•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등)
	학교급별	•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지지대상	• 학부모, 일반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연구방법	표본 크기	• 연구참여자의 수
	연구방법론	•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연구주제	진로 관련 변인	• 진로발달(진로성숙도, 진로계획, 진로준비, 진로 결정수준,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지지체계, 언어, 직업정보, 경제력), 기타(사회적 지원, 진로의식, 진로 탐색, 진로 가치관 및 태도)
	진로상담 및 교육	• 2011-2020. 4. 연도별 진로상담 및 교육 분석
	프로그램 (상담, 진로)	• 프로그램 종류 • 회기의 횟수
	핵심어	• 연구논문에 언급된 핵심어 분석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연구 동향 분석 틀은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기본정보로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 논문의 발행처별 분포와 발행연도별 분류를 통한 논문 수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므로 국내 발간된 전체 학술지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연구현황과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교육부(2019)의 다문화가정 학생 범주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출간된 논문 중 외국인 가정 자녀 대상으로 특정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고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대상 논문이 있어서 중도입국 자녀, 탈북청소년, 그리고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를 학교급별(초, 중, 고, 기타)로, 지지대상인 학부모와 교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표본 크기에 따른 연구 내용도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넷째, 연구주제에 의한 분류는 Super(1990)의 전 생애적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발달과정의 주요개념인 요인들과 선행연구(조항 외, 2009; 유정이, 김혜경, 2008)를 바탕으로 본 연구분석 시 도출된 새로운 주제들을 추가 변형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과 진로교육 영역에서 진로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이 참여한 연구를 다

양한 진로 관련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본정보

가. 발행처

2010년에서 2020년 4월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를 분야 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문 분야에 따른 발행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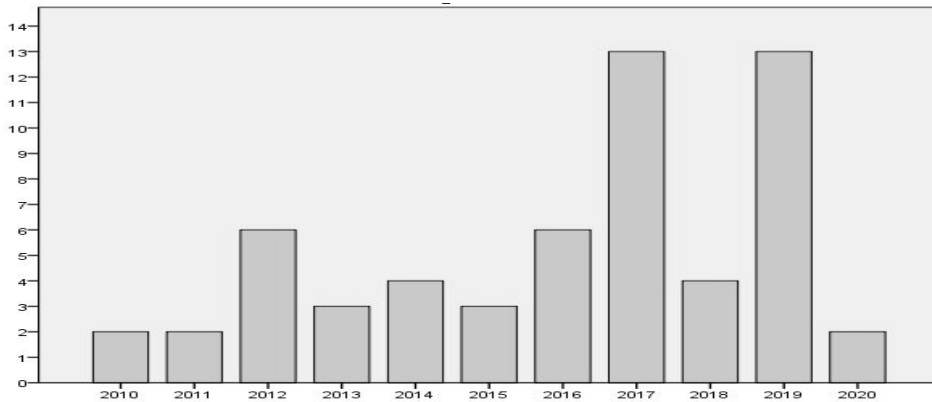
분야	학회지명	수	합(%)	분야	학회지명	수	합(%)
교육	통합교육연구	1	26(44.8)	청소년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	9(15.5)
	진로교육연구	6			글로벌청소년연구	2	
	한국실과교육학회	1			청소년학연구	2	
	다문화교육연구	4		사회 복지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	8(13.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			학교사회복지	4	
	한국교육문제연구	3		청소년시설환경	2	기타	10(17.3)
	교육문화연구	1		청소년복지연구	1		
	교육사회학연구	1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2		
	교육인류학연구	1		문화교류연구	1		
	중등교육연구	1		한국콘텐츠학회	1		
	교육과학연구	1		한국행정사학지	1		
	중등교육연구	1		비교법학	1		
	교육정책연구	1		민족연구	1		
	평생학습연구	1		GRI연구노총	1		
	인격교육	1		한국산학기술학회	1		
상담 심리	상담학연구	1	5(8.6)	인격교육	1		
	초등상담연구	3		합계	58(100)		
	한국심리학회지	1					

위의 <표 3>과 같이 교육 분야의 논문이 26편(4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분야가 9편(15.5%)과 사회복지 분야의 논문이 8편(13.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담심리 분야에서는 5편(8.6%)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도 논문 10편(17.3%)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발행연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RISS, KISS, DBpia,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는 2010년부터 출간되었다. 2010년에서 2020년 4월까지 10여년 간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연구의 연도별 논문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의 발행연도에 따른 빈도 그래프

국내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는 1966년부터 출간되어왔다. 반면 다문화 내담자 대상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는 2010년부터 출간되고 있고 현재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다. 연구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

학문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학문 분야별 연도별 게재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교육	1	1	4	3	1		4	6		5	1	26
상담	1	1	1						1	1		5

심리													
청소년						2	3	2	2				9
사회 복지	1		2	3			1		1	1			8
기타				1			3	1	5				10
계	2	2	6	3	4	3	6	13	4	13	2		58

위의 <표 4>와 같이 2016년 이전에는 주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논문이 발간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교육 분야뿐 아니라 청소년과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교육, 상담심리, 청소년, 기타(문화교류연구, 한국콘텐츠연구, 평생학습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이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4월까지의 출간된 논문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현재 2020년도의 분석대상 논문 수는 적다.

2. 연구참여자

가. 연구참여자

본 연구분석의 연구참여자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 유형별 분포와 연도별 추이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도 입국 자녀	1		2		1	1	1	4	3	1		14 (24.1%)
탈북 청소년					1		1	3		1		6 (10.4%)
혼합*	1	2	4	3	2	2	4	7	1	11	2	38 (65.5%)
합계	2	2	6	3	4	3	6	13	4	13	2	58

위의 <표 5>와 같이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한 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혼합은 모든 유형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38편(65.5%)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학생연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출간물이 발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중도입국

* 다문화가정 자녀(국제 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등)

학생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 출간물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구는 6편(10.4%)으로 2014년 이후 계속 출간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를 학교급별로 연구 분포를 살펴본 것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참여자 학교급별 분포

분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수	16	36	26	8

※ 한 가지 이상의 학교급별 분류에 사용하였을 경우 중복적용

위의 <표 6>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연구 출간물이 26편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연구참여자인 연구 출간물은 16편이었다. 기타는 학년이나 연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연구 출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8편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분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지지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참여자 지지대상에 따른 연구 분류와 연도별 추이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일 교 반 사 진 로			2	1	2	1	1	1		1		9
부모					1		1					2
부모					2	1	1	1		6	1	12

※ 한 가지 이상의 연구참여자 지지대상 분류에 사용하였을 경우 중복적용

위의 <표 7>과 같이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는 2012년부터 출간되었다. 다문화학생과 함께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연구한 논문 중 부모와 함께 연구된 논문 출판물은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사가 연구참여자인 연구는 11편으로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지대상 중 교사 연구는 2012년부터 꾸준히 출판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교사와 더불어 부모 대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9년 지지 배경에 대한 관심으로 부모 대상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표본 크기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수, 즉, 표본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은 58편 중 42편

* 학년이나 연령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연구참여자

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조사하여 얻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8편으로 1,247명에서 1,42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1편으로 66,56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10,558명의 한국교육 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도 1편이 있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연구에 다문화 관련 패널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합
수(%)	28(48.3)	15(25.9)	7(12.0)	8(13.8)	58(100)

위의 <표 8>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28편(48.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양적 연구 중 연구대상 표본의 크기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총 58편 중 10편을 차지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지대상을 연구참여자로 한 연구 중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연구는 질적 연구로 15편(25.9%)이 있었다. 현상학, 해석학, 내러티브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질적과 양적을 혼합으로 사용한 혼합연구는 7편(12%)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헌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선행연구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정책에 관련한 연구, 교과서 분석을 이용한 진로상담 관련 연구, 문헌 탐색을 통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등 8편(13.8%)이 양적과 질적 연구방법 외의 연구로 분석되었다.

4. 연구주제

가. 진로 관련 변인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진로 관련 변인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우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로발달 변인은 진로성숙도, 진로 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진로계획 변인 순으로 주요한 연구주제가 수행되었다. 두 번째로, 진로 태도에 관한 연구주제 변인은 진로탐색, 진로가치관, 진로의식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세 번째로,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주제 변인은 지지체계

와 경제력, 직업정보, 언어 순으로 주제로 수행되었다.

<표 9> 진로 관련 변인

구분	연구 변인	수	합	구분	연구 변인	수	합	구분	연구 변인	수	합
진로 발달	진로성숙도	22	75	진로장벽	지지체계	9	28	진로태도	진로가치관	10	32
	진로계획	8			언어	4			진로의식	10	
	진로준비	13			직업정보	6			진로탐색	12	
	진로결정수준	16			경제력	9		기타	사회적지원	8	8
	자기효능감	16									

※한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 변인이 사용되었을 경우 중복적용

나. 진로상담 및 교육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을 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은 다음 <표 10>과 같이 총 17편이었다.

<표 10> 연도별 진로상담 및 교육 분석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진로상담			1		2			2				5
진로교육	1		1	1			2		1	2		8
진로상담 및 교육			1					2		1		4
합계	1		3	1	2		2	4	1	3		17

위의 <표 10>과 같이 진로교육을 변인으로 다룬 논문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상담 변인으로 다룬 논문은 5편이었다. 진로상담과 교육 두 가지의 변인을 모두 다룬 논문은 4편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진로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도 연구되었다(진의남, 김선혜, 2012). 2016년 이후로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 진로상담과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종류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분류와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프로그램 분류와 연도별 추이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진로성숙도						1	1					2
진로집단상담								1				1
진로결정효능감								1				1
진로인식					1							1
합계					1	1	1	2				5

위의 <표 11>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총 5편이었다. 첫 번째로, 진로성숙도 향상에 관한 연구는 2편으로 팀 리더십 개발과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권희연, 김미선, 박중휘, 2016; 김민경, 2015)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적용은 2017년에 연구되었다(김현영, 장석진, 2017; 최현주, 김희수, 2017). 이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은 진로의식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또한 커리어 앵커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의식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홍광표, 2014). 두 번째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연구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관심과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프로그램 회기와 참여 인원수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은 10회기(2편), 8회기(2편), 6회기(1편)로 진행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집단 인원수가 16명인 연구가 5편 중 4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진로상담프로그램은 6회기에서 10회기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의 수는 16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운경(2017)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100여편의 논문 메타분석 결과에서 9회기에서 12회기가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프로그램연구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의 회기 수는 8회기에서 10회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참여 인원은 본연구 분석결과와 같이 16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핵심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58편을 토대로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핵심어는 총 163개였다. 그 중 6번 이상 반복된 키워드는 7가지로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핵심어

키워드	빈도수	비율(%)
다문화청소년	18	11
다문화	7	4.3
진로성향	7	4.3
진로발달	7	4.3
진로장벽	7	4.3
진로결정효능감	6	3.7
다문화학생	6	3.7
합	58	35.6

다음 <표 12>에 제시된 단어들은 주요 핵심어들로 전체 빈도의 35.6%를 차지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연구는 주요 연구참여자가 다문화 청소년으로 진로성향, 진로발달, 진로장벽과 진로 결정 효능감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연구는 청소년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며 이들의 진로성향과 진로발달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진로장벽의 원인을 찾아 진로 결정 효능감 향상으로 수행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연구의 국내 다양한 연구 분야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진로상담과 다문화 상담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 틀을 설정하고 선정된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4차례의 선정과정을 통하여 얻은 국내 학술지 58편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본 분석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을 거치며 분석 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본정보,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 상담심리 분야, 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되었고 2020년 최근까지 연구되고 있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보건복지부, 2008)된 이후 다문화가정 학생 연구가 증가하며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도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운선과 이미나(201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족 상담연구가 2008년부터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고, 박병금(2020)의 연구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가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치할 보인다. 즉,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교육부에서는 진로교육법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15).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6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진로 상담(지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교육부, 2016)하였고, 그 영향으로 2017년 다문화 학생 진로상담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 연구 동향(김주후, 정소미, 2019)에서 2017년 진로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년 논문 출간의 증가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연구증가(박병금, 2020)와 일치한다. 이는 2018년 12월 국내에서 다문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2019년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학회지 학문 분야에 따른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연구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 관련 논문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으며, 그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심리에 관한 관심보다 사회정책의 시행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로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진로선택을 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된 논문이 많았고, 중, 고등학생이 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패널데이터가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유형별 분석 시 교육부가 분류한 다문화가정 학생 유형인 국내 출생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하려 하였으나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된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중도입국 자녀와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과 이윤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배경이 뚜렷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고유성을 살펴보기 힘들고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으로 집단 구분 없이 일반적 다문화가정으로 다수가 연구된 바 있다. 윤새은임과 유진이(2017)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을 기점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 학계가 관심을 가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기까지 본국에서 성장한 후 국내로 이주하며 진로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유진이, 2013). 또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며 이들의 진로에 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윤혜순,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중도입국 자녀와 탈북청소년이 연구참여자인 연구 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여 앞으로 다양한 배경 특성에 따른 구분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급별 연구 동향 분석결과 중, 고등학생 대상 연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발달 과정 중 진로 인식이 시작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자아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통하여 진로를 바르게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엔 주변 타인들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고미순, 2020).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상담에 그들의 지지대상이 고려된 연구들이 있었다. 분석결과 지지대상은 크게 교사와 부모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성창, 김재우와 이윤옥(2016)의 연구와 같이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진로지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에 주요한 변인(김명숙, 이미현, 2019; 이혜미, 김유미, 2019; 장혜림, 이래혁, 2019)으로 추후 다문화 학생의 진로상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표본에 다문화 패널데이터가 다수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김지연과 이윤희(2019)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조건에 맞추어 필요치 않는 데이터 삭제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양적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김지연, 이윤희, 2019), 일반 진로진학상담연구 동향(김주후, 정소미, 2019)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연구 동향(박병금, 2020) 등에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로 상담분야에서 복잡한 심리현상, 소수 집단이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집단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Ponterotto, 1998; Sue & Sue, 2008).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진로상담 분야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분야로 진로상담의 다양한 사례 관찰과 기술을 위하여 질적연구 수행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연구주제는 진로발달, 진로장벽, 진로태도, 등 진로 관련 변인이 다루어졌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인식과 진로집단상담이 다루어졌다. 우선 진로 관련 변인 중 진로발달 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민경(2015)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진로발달 단계를 거친 청소년이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문제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시기적 특성, 다문화적 맥락을 통해 그들의

진로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문화 학생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적절한 진로 결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진로상담 관련 학술지 발행기관분석에서 알 수 있었듯이 상담 및 심리 분야의 학술지에서 출간된 연구는 소수였다. 마찬가지로 진로상담을 변인으로 한 연구논문은 5편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지연과 이윤희(2019)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는 교육이 중심으로 수행되어왔고 진로 관련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특성에 관한 탐구를 통한 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선택 과정에 대해 구체적 고민이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진로장벽 중 언어 변인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독특한 변인으로 진로상담 관련 연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 진로상담 분야에서 개인 특성과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연구가 촉구된다. 또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물은 2014년부터 출간되었다. 진로성숙도 향상 프로그램 연구 2편(권희연 외, 2016; 김민경, 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 2편(김현영, 장석진, 2017; 최현주, 김희수, 2017)과 진로의식 촉진 프로그램 1편(홍광표, 2014)이었다. 김래경과 장선철(2015)의 고등학교 진로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에 연구된 프로그램 논문은 125편에 이른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5편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고려된 진로 변인의 진로프로그램 구성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심어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서 적용될 프로그램 구성 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로성향, 진로발달,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장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과 관련된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상담 분야의 관심과 다양한 진로 변인을 적용 및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내의 문화적 배경으로 성장한 일반가정 학생들에게는 진로상담연구의 다양한 진로검사척도가 존재하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진로검사 척도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장벽 척도에 관한 연구는 1편(이아라, 손보영, 이주영, 2018)뿐이다. 일반 진로상담에는 다양한 진로검사 도구가 사용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사들은 진로상담을 수행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도구의 부족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에 도움을 주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진로상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변인 탐색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요구로 진로교육연구는 꾸준히 여러 진로 변인으로 수행되고 있다. 진의남과 김선혜(2012)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진로상담을 하는 진로상담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상담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진로상담사를 지지

변인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진로상담 주제 관련한 다양한 변인, 즉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상담 변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도구와 진로상담 프로그램 대한 변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사의 인식 변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윤경(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미순(2020). 대학생의 내부통제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학회지**, 1(1), 39-53.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2015).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공포, 201512.23. 시행).
- 교육부(2016). 학생유형별 진로상담(지도)운영 매뉴얼: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운영매뉴얼.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6). 2016년 다문화교육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2013).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학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권희연, 김미선, 박중휘(2016).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및 팀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역량, 학교적응 역량, 진로 성숙도의 차이 연구. **통합교육연구**, 11(1), 21-42.
- 김래경, 장선철(2015). 고등학생 진로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 207-329.
- 김명숙, 이미현(2019).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2(1), 19-34.
- 김민경(2015).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3), 147-171.
- 김봉환(2017). 진로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학술지**, 23-47.
-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2007).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8(2), 583-602.
- 김은경, 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2003-2015).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지연, 이윤희(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2009-2019.6).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연구**, 19(19), 1205-1230.
- 김주후, 정소미(2019). 진로진학상담 연구동향-‘상담’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4), 117-140.
- 김현영, 장석진(2017).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시**

설환경, 15(4), 85-100.

- 류성창, 김재우, 이윤옥(2016).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6), 451-481
- 박병금(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박주희, 남지숙(2010).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진우, 장재홍(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2008.3.21.제정).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손승연, 이종연(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149-170.
- 송윤선, 이미나(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관련 KCI연구 동향-1993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697-706.
- 오성배(2005). 코시안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은경, 최미, 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여성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7281호. 2008.3).
- 여성가족부(2018).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 17281호. 2018.3).
- 윤새은임, 유진이(2017).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1), 57-93.
- 유정미, 김혜경(2008). 청소년 진로상담 연구 동향. **진로교육연구**, 21(4), 43-58.
- 유진이(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1), 219-237.
- 유현실(2018). 4차 산업혁명과 진로상담. **상담과 지도**, 53, 57-68.
- 윤아름(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아라, 손보영, 이주영(2018). 다문화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9(5), 257-272.

- 이창호(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종단적 연구와 정책개발: 질적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미, 김유미(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기와 진로 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65-689.
- 장덕희, 신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 정하성(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다시 보는 다문화청소년, 올바른 시선이 그들을 향하다**. 한국학술정보.
- 장혜림, 이래혁(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47), 189-218.
- 진의남, 김선혜(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안. **인격교육**, 6(2), 73-100.
- 조남옥, 박명선(2014). 국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2004년-2013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7(3), 181-198.
- 조향, 김계현, 이자명(2009). 국내 진로 및 진로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33.
-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 최현주, 김희수(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0(3), 71-91.
- 홍광표(2014). 커리어앵커를 활용한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촉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1-28.
- Bardick, A. D., Bernes, K. B., Magnusson, K. C., & Witko, K. D. (2006).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lans for the future: A Canadian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3), 250-271.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Ponterotto, J. G. (1988). Racial/Ethnic minority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 content analysis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10-418.
-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 13-19.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5th ed.). NJ: John Wiley & Sons. Inc..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in Sun Kim (Doctoral Student, Inha University)

Youngsoon Kim (Professor,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d analyze domestic studies on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plore research trends.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areer counseling research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selected three times from 2010 to April 2020 research papers selected as key words of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students' and 'career counseling'. And a total of 58 pieces were analyzed through the exclusion process. When deriving the analysis framework,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it into basic information, research o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subjects by conducting two categories of prior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multicultural family student career counseling papers are continually published in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youth, and social welfare. Second, there were many papers that were studied without classifying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inl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panel data was used a lot. Third, quantitative research was mainly used for the research method. Fourth, research topics included career development,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s, and career counseling programs.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efficacy,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group counseling were cover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de suggestions for the stud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career, multicultural career, multicultural student, career counseling

